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정 순 희

2016년 2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연구

지도교수 김 혜 숙

정 순 희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2월

정순희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6년 2월

# 목 차

목 차 .....	i
표 목 차 .....	iii
그림목차 .....	IV
국문초록 .....	v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연구모형 .....	4
3. 용어의 정의 .....	5
<b>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b> .....	7
1. 노후준비 .....	7
1) 경제적 준비 .....	9
2) 신체적 준비 .....	10
3) 정서적 준비 .....	12
2. 요양보호사 .....	14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14
2) 요양보호사 .....	15
3. 선행연구고찰 .....	17
1) 일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 .....	17
2)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 .....	22
<b>III. 연구방법</b> .....	25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25
2. 연구절차 .....	25
3. 측정도구 .....	26
4. 자료분석 .....	29
<b>IV. 연구결과</b> .....	31

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1
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인식 .....	34
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실태 .....	39
1)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	40
1) 신체적 노후준비 실태 .....	41
1) 정서적 노후준비 실태 .....	42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의 차이 .....	43
4.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 실태와의 상관관계 ..	52
V. 결론 및 제언 .....	55
1. 결론 .....	55
2. 제언 .....	57
참고 문헌 .....	59
Abstract .....	66
설문지 .....	70

## 표 목 차

<표 II-1>	일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 준비에 대한 선행연구	20
<표 II-2>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선행연구	24
<표 III-1>	요양보호사의 노후 준비인식 및 실태에 관련된 설문항목	27
<표 III-2>	신뢰도	29
<표 IV-1>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3
<표 IV-2>	노후준비인식 (노후생활 중요도)	35
<표 IV-3>	노후준비인식 (노인자각연령, 노후준비시작시기, 노후생활부양책임)	37
<표 IV-4>	노후준비인식 (경제, 건강, 사회적 활동, 가족친밀도)	39
<표 IV-5>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41
<표 IV-6>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노후준비 실태	42
<표 IV-7>	요양보호사의 정서적 노후준비 실태	43
<표 IV-8>	연령에 따른 노후준비	44
<표 IV-9>	최종학력에 따른 노후준비	45
<표 IV-10>	퇴직시 남은 기간	46
<표 IV-11>	종교에 따른 노후준비	47
<표 IV-12>	결혼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48
<표 IV-13>	월수입에 따른 노후준비	49
<표 IV-14>	배우자 직업에 따른 노후준비	50
<표 IV-15>	자녀수에 따른 노후준비	51
<표 IV-16>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 실태와의 상관관계 (N=203)	49

## 그림목차

<표 I-1> 연구모형 .....	5
--------------------	---



<국문초록>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연구

정 순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숙

이 연구는 만성적인 질환과 질병으로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특성을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인식과 그에 따른 실태는 어떠한지 그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8개소(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4개소)의 요양보호사 최종 20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자료의 검정에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연령은 평균 49.95세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기독교, 불교 순이었으며, 70%이상이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다. 월수입에 있어서는 85%이상이 2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 직업은 월급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가 2명인 가정이 가장 많았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인식에 있어서 노후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 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으로 경제력을 가지는 것, 부부가 해로 하

는 것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고 자각하는 연령은 70세이고, 노후준비 시기에 있어서는 40세 이전부터 라고 응답하였다. 노후생활 부양책임에 있어서는 본인 또는 본인과 배우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들이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활동 상태, 가족관의 친밀도, 경제상태는 대체로 보통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가족과의 친밀도가 평균 3.463으로 가장 높았다.

셋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 준비실태는 먼저 신체적 준비 정도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식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고 체중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피로가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준비 정도에서는 노후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고, 개인연금이나 보험, 은행 적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이나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에는 다소 낮은 응답을 하였다. 정서적 준비 정도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식과 동거하기보다는 독립된 삶을 원하고 있었으며, 노후에도 자신의 장점과 능력 개발을 위해 힘쓰며, 노후 모임을 많이 만들어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는 연령, 퇴직 시까지 남은기간, 종교, 월수입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55세 이상인 집단이 신체적 준비가 잘되어 있었고, 퇴직시까지 남은 기간에서도 5년 미만이 집단이 신체적, 경제적 준비실태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왔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신체적 준비를 더 잘하고, 월수입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준비실태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실태 관계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가족 친밀도는 연령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관적 경제상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경제 상태가 안정적이란 인식을 하면 주관적 건강상태나 사회적 활동 상태, 가족 친밀도 그리고 실질적인 노후준비 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인식이 현재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길어진 평균 수명과 그로 인한 불투명한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노인과의 직접적 대면을 통한 노후준비의 필요성 인식과 현재의 생활수준의 유지, 노인복지정책이나 가족 부양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노후생활에 있어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느 한부분에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측면 모두에 있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들의 노후준비인식과 실태를 통해 노후준비를 하는데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지원이 제공되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있어 자식에게 기대려 하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년기에도 경제력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과 노후준비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년기는 갑자기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발달의 연속 과정 중 한 단계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생의 과정이다. 노후를 평안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장년기부터 노후준비에 적극적인 태도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고령화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산업화, 의료기술의 발달, 경제적인 풍요, 생활환경의 개선, 사회적 인식변화로 사망률과 출산율이 모두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산업화 도시화 등 현대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사회문제를 가중시키며(정규형, 2013), 노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그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 통계청). 제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9월 기준으로 14.2%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추이면 오는 2030년에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년 총인구의 14.2%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에는 33.9%로 급증해 제주인구 3명중 1명은 노인 인구가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중은 16.9%에서 12.2%로 줄어들고, 생산 가능인구는 69.3%에서 53.9%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호남지방통계청, 2015년 제주도 통계로 보는 우리고장 어르신들의 모습). 이는 99년도 생산 가능인구 10명당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 했으나, 2030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2.5명당 1명이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노인 부양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 변화와 주부양자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일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서소혜,

2011)로 부각되었다. 그동안 가족의 몫으로 여겨오던 노인부양 부담을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목적으로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족부양의 부담을 감소 시켜 줌으로써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이다(노인장기요양법, 보건복지부, 2008).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치매, 중풍 등 여러 가지 질병과 기능장애가 중복되어 질병이 장기화 되는 상태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이부심, 2009)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제도가 만들어 졌고.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의 특성을 잘 이해 할 수 있어야 하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업무영역에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임화영, 2012)이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 대부분이 중년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공급체계의 중심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노인들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 관리자들의 지원과 존중의 결여, 합리적이지 않은 업무 분담 등으로 인해 막다른 일자리(윤희숙외, 2010)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상태는 제도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일한 노력에 비해 보수가 적다(박옥신, 2011). 이러한 이유로 예비노인으로서는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인식이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연구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건강수명이 평균 남성은 68세, 여성은 72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7)로 기대수명은 남성78.5세, 여성85.1세(OECD, 2015)로 이것은 보통 노인이 10년 이상의 기간을 질병 상태로 생활 한다는 것으로 ‘수명의

양'보다는 '수명의 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길어진 노후생활은 노후의 빈곤문제, 노인 부양문제,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노인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춘희, 2008)이 되어 노후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노후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생활에 대한 실질적 준비보다는 현재의 삶에 대한 투자나 노력이 더 절박한 것이 현실이다.

생활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여성노인이 많은 제주지역도 유사한 실정으로 노후의 만족스런 삶을 위해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문제들을 날마다 접하게 된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노인들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누구보다도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절실하게 직면하며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노후준비에 있어서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를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요양보호사의 노후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상태가 어떠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혜진, 2012. 김영남, 2015. 배재덕, 2013)이나 성공적 노년인식(박경미, 2013.장은아, 2014. 강기은, 2014)에 대한 연구 및 노후생활 대책(추기철, 2000. 박정희, 2007. 이상경, 2012)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노인 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연구는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환경이나 노인학대(서소혜, 2010. 송한나, 2013. 류숙희, 2014. 정영희, 2013), 노후 준비 대책(박지선, 2014. 이춘희, 2008. 김연선, 2015. 백용운, 2008) 등의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나 직업의식(오원갑, 2011; 이부심, 2009; 박옥신, 2011; 윤숙정, 2014; ), 전문성 인식(조추용, 2007; 임화영, 2012) 등이 있으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그친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인문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고, 나아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하여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 실태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연령, 학력, 소득, 종교, 결혼상태, 배우자 직업과 자녀수 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나아가 주관적 경제 상태와 건강상태, 가족친밀도와 사회 활동 상태, 노인이라 생각되는 나이,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문제점 등과 같은 노후준비인식과 경제적 준비실태, 신체적 준비실태, 정서적 준비 실태는 어떤지를 파악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통해 요양보호사들 자신들이 노후준비 대책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및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는 어떠한가, 더 나아가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인식과 준비 실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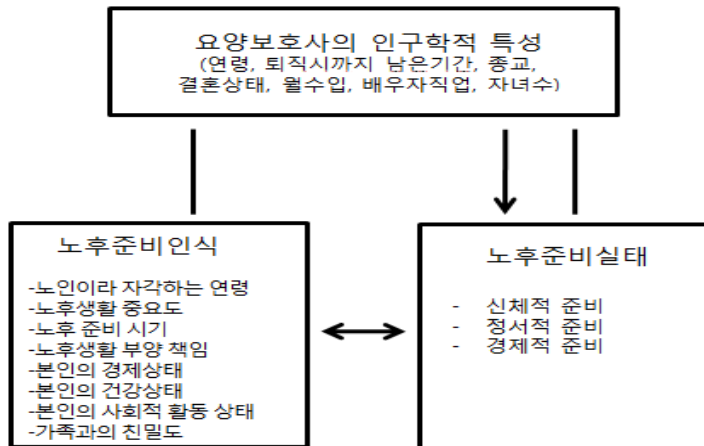
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인식은 어떠한가?
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실태는 어떠한가?
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 준비 실태는 차이가 있는가?
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인식과 준비 실태는 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 목적에 따라 노인복지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실태의 차이와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실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노후준비인식은 노인으로 자각하는 연령, 노후생활 중요도, 노후생활 부양책임, 주관적 경제상태, 신체상태, 사회적 활동상태, 가족과의 친밀도 8개의 하위차원으로

로 구성하였고, 노후준비 실태로 신체적 준비실태, 경제적 준비실태, 정서적 준비 실태의 3개의 하위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 모형은 <그림 I-1> 과 같다.



<그림 I-1> 연구모형

### 3. 용어의 정의

#### 1)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자를 말하며(노인복지법 제 39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 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 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를 말한다.



## 2) 노후준비

노후준비란 앞으로 자신이 노후생활에서 직면할 문제에 대한 준비를 말하며, 인간관계, 가족관계, 삶의 만족, 보람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노후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안에 대한인지와 그에 따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 즉, 노후준비는 생의 전체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균형감과 가치를 지향해야 함을 뜻한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1. 노후준비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 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인생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커지고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축소되는 시기에 확대(박창제, 2008)된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노후의 생활만족, 즉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노년기 삶의 질은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간다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태, 즉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이라 여겨진다.

최근에는 인간의 전생애주기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노화와 노년기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발전과는 별개로 인간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노년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박지선, 2004).

우리나라의 노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5%로 OECD국가 중 1위이며 노인자살률 역시 1위이다. 더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14%가 65세인구로 채워지면서 본격적인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불과 8년 만인 2026년부터는 초 고령화 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예상(보건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경제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재정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게 될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이나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우려를 야기 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고

령사회를 대비하여 전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였는데 노후준비지표는 사회적 관계, 건강,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등 4개 영역 총 4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완(국민연금공단, 2012)될 것이라 한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김영선, 2015)으로 한 연구는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반면 본인의 노후에 대한 전망을 측정한 노후의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은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 또한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성공적 노후라고 인식하는 이상적인 노후의 모습과 현실적으로 예상하는 본인의 노후생활에 격차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고,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노후준비 행동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14)에 의하면 2013년 81.94년으로 2000년 76.02년과 비교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퇴직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생애 중 가장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4개월이고, 2013년은 14년 10개월, 2009년에는 20년 3개월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고, 퇴직연령은 2014년에 만49세, 2009년에 만53세로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노후관련 설문조사(김영남, 2015)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의 준비정도는 미흡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40대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비율이 72.8%에 달했으나 이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정도는 보통이거나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즉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후준비는 길어진 노후와 빨라진 퇴직으로 인해 중년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하며 가족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할 수 있는 가족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준비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을 충분히 예측하여 반영하는 수준에서 마련(이채우, 2008)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노후준비 유형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박지선(2004), 박정희(2007), 이상경(2012), 배재덕(2013)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준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장은아(2014), 박경미(2013)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여가 준비로 나누며, 추기철(2000)은 경제적, 건강문제, 사회활동, 주거환경, 사후로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노후생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세부 요인으로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사회·정서적 준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대표적 노인 문제로 일컬어지는 질병, 빈곤, 우울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준비 영역을 세 가지 준비 즉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경제적 준비

노인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노후 생활에 있어서 경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노후의 삶에 있어서 경제력은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심리 정서적 만족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2006, 이복희)한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의 목적은 노후기간동안 재무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이다(박창제, 2008).

연령의 증가에 따른 경제생활의 형태를 보면 성인기에는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최대치를 올리게 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입률이 저하되다가 무수입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소득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몰락하게 되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의존적이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다. 노인들 스스로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 의한 경제적인 부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이춘희, 2008)하다.

특히 열악한 경제적 노후준비는 그대로 노인 빈곤으로 이어져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그 심각성(김연선, 2015)은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노년기 이전에 경제적 준비를 못하면 노년기의 생활수준은 크게 하락되고 노령인구의 경제적 빈곤은 국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야기 할 것이다. 노후의 안정된 삶과 삶의 질을 위해서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경제계획준비가 중년기부터 시작(2015, 김영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가 34.3%이며, ‘국가적 차원’이 18.6%순으로 노후의 경제적 자립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는 17.9%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노인들의 절반이상이 경제적 노후준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스스로의 만족도는 낮다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가 34.4%, 국가차원이라는 응답이 18.6%로 약 53%의 노인들은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일정부분 부양책임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중 공적연금소득 비율이 대폭 확대 되었는데 이는 기초노령 연금지급 및 국민연금 등이 성숙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소의 의식의 변화(김혜진, 2012)는 있으나,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스스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대해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준비를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경제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 2) 신체적 준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최고의 조건이다.

건강은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고 개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목표를 추구

하고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건강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 활동인 식사, 수면, 운동 등의 일상생활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히 노년기에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건강과 질병의 판단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을 단순히 허약성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라고 정의(권중돈, 2012)하고 있다.

신체적 노후 준비란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우상경, 2012)를 말한다.

인간의 노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생물학적 현상으로 시간의 흐름과 생활주기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일차적 노화이다. 외적인 환경에 의해 즉 질병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에 의해 질병이 발병하고 수명이 단축되는 이차적 노화(권중돈, 2012)가 있다.

그러므로 신체적 노후 준비와 관련하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노화의 속도와 신체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차적 노화의 관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성질환과 장애를 갖게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잘 관리함으로써 질환과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노년기를 보내고 수명이 더 연장되기도 한다. 이를 인식하고 건강관리와 유지 측면에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을 통해 노후에도 지속적인 건강유지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적 건강관리도 중요(백용운, 2008)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부터 건강 유지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가 중요하고 노화로 인한 건강 상실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로 인해 노동력의 상실을 가져오고 이런 상태에서 의료비지출은 경제적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며, 건강의 악화는 사회적 활동범위를 축소시켜, 고독, 무력, 소외의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자아가 위축되어 결국 노인생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 건강의 특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병률이 높고 질병이 만성적이며, 합병증의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와 보호를 필요(주기철, 2000)로 하는 것이다.

박경미(2013)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와의 관계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배재덕(2013)의 연구에서도 노후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경제상태의 여건과 관계없이 모두 건강을 1순위로 선택하여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깨닫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하였다. 노년의 건강문제는 노후 준비나 노후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경제적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노년기의 적응과 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수용성과 긍정성, 자아존중 감, 무력감, 우울증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노년기 적응과 생활 만족도가 높고, 자기 인생에 대한 수용성과 긍정성, 자아 존중감도 높은 반면 무력감과 우울증 수준은 더 낮은(주현우, 2015 재인용)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조사된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질병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자살충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노후의 삶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신체적 노후 준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신체적 기능이 좋아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해 간과하기 쉬우나 신체적 노화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진행되어지고 한번 건강을 해치게 되면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년기부터 꾸준한 건강관리 등을 통해 신체적 노후 준비(김연선, 2015)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적 준비는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

### 3) 정서적 준비

정서적 노후 준비는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문제에 대해 노년기 이전에 미리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 가는 일련의 노력(김연선, 2015)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즉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노년기 이전부터 준비해 감으로써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버니튼 뉴가튼(Neugarten) 교수의 세대 구분법 1964년 『중·노년기의 성격(Personality in Middle and Late Life)』에 따른 용어를 보면, ‘Young old’ 라는 말이 있다. 55세 정년을 기점으로 75세 까지는 노인이 아니라 ‘젊은 시니어’로 본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1.9세인데 2013년도 기준이고 40년 전에 비하여 20세나 증가(통계청, 2014)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연장은 그만큼 노후기간이 길어짐을 뜻하고 젊은 층의 노년층 부양비율도 높아져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할상실에서 부정적 정서적 문제에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인 변화는 정년퇴직, 배우자의 사별, 자녀의 독립, 친구의 죽음 등으로 역할 상실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축소,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노화에 큰 영향(이춘희, 2008)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 특히 노년기의 정서적 문제는 신체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노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년기에 정신적 불안에 빠져 여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격완성을 향한 부단한 노력(이춘희, 2008)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일, 여가활동, 사회활동, 취미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가 필요한 이는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늦기 때문에 중년기부터 준비(최윤희, 2004)가 필요하다.

에릭슨에 의하면 중년기 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을 생산성(generativity)이라고 하였다. 생산성이란 가정적으로는 자녀를 낳아 키우고 교육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직업적인 성취나 학문적, 예술적 업적을 통해서도 생산성을 발휘하며, 자신의 2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회적인 봉사 등을 통해서도 생산성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생산성이 결핍되면 성격이 침체되며 중



년의 위기를 겪게 되고 바로 이러한 점이 노년기 까지 연결이 되어 황폐한(배계희, 1988 재인용)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자녀, 친구, 일, 여가활동,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등이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기직업 이외의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준비를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심리적 불안에 빠져 무의미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미리 인간관계 유지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지로 정의 하고자 한다.

### 3. 요양보호사

####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 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2008).

적용대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 제3항)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

협법 제8조 제9조) 으로 운영된다.

## 2) 요양보호사

저 출산,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이 커지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법을 시행하였다. 노인 장기요양 법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필요한 인력이 요양보호사이다. 노인 장기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김수미, 2014)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가 보다 건강하고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노인 장기요양 인력이라고 규정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은(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015) 이전에는 가정봉사원, 생활보조원, 생활지도원,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 민간 자격으로 노인 케어 업무에 종사 하였으나 제도시행 이후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2급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인정하는 서비스 표준을 제시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급여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여성과.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015).

요양보호사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두며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의 교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민간자격의 수준이었던 간병인이나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노인요양에 관련된 직종들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계기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권에 영입되게 되었다(노인복지법 제39조 2와3에 요양보호사의 설치에 관한 법).

노인 장기 요양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8년에는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박지영(2012)은 요양보호사를 취득하는 보통 연령대는 40~50대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장이후 40~50대에게 일자리와 자격증 취득이라는 희망이었던 것이 시험제도로 바뀌고 난 후에는 글을 모르거나 학업을 중도 포기한 이들에겐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어렵게 되었다.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 인력 양성이 시작된 이래 2015년 9월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전국에 750개이며, 총 1,177,235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였다. 2010년 4월 26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기존의 1,2급 요양보호사 등급이 통합되어 현재 1급 요양보호사만이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인 제주도내의 요양보호사 교육 전문기관은 13개 기관이며, 총 16,000여명이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어 활동 중이다.

노인 장기 요양제도 서비스에 있어 가장 핵심 요소인 이 연구의 대상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상자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와 식사, 배설, 목욕, 이동 청소, 세탁, 외출 돕기 등의 일상 업무보조의 역할과 생활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인생경험을 존중하며 발견된 문제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 수행하며,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관계된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한다. 요양보호사의 지원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공통 표준교재, 2010) 등이 있다.

#### 4. 선행연구 고찰

노후준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들 (배계희, 1988; 이복희, 2006; 이남, 2010; 장은아, 2014; 박정희, 2007; 추기철, 2000; 박경미, 2013; 이채우, 2008; 김영남, 2015; 황승희, 2012; 최윤희, 2004; 배재덕, 2013)과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와 노후준비 실태,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이춘희, 2008; 우상경, 2012; 박지선, 2004; 백용운, 2008; 김연선, 2대책015)등이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만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인식과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는 고령과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간관계 형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전 과정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대면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독자성(2012, 우상경)을 가진다. 요양보호사는 지역사회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요양서비스 효과와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류숙희, 2014)이다.

##### 1) 일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 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령화 시대의 노후 준비인식이나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는 연구의 방향은 다소 다르나 길어진 노년기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중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준비는 39세 이전부터 시작 하여야 하며,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건강이며 그 다음이 경제력이라 조사 하였다. 노후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경제력과 건강관련 문제를 지적(황승희, 2012)하였다. 이 연구에 응답한 중년기 여성들 노후준비를 하는 이유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라고 하였으나 경제적인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노후 생활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불안 요소임을 알 수 있

다.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배재덕, 2013)은 노후 준비는 30~40대 부터 시작해야 하며, 노후생활 부양책임은 본인 또는 본인과 가족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노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중요항목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건강문제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경제문제, 3순위는 취미생활로 응답하여 은퇴이후의 중요 관심사항은 건강과 경제문제 및 취미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영역별 은퇴준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는 신체적 측면의 은퇴준비가 가장 잘되고 있는 반면에 경제적 측면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은 주관적 기준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길어진 노년기를 반영하면 크게 높아졌다. 65세 이후부터란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연령에 따라 달리 대답을 하였는데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높은 집단은 70세라 하였으며, 그 반대는 65세라는 응답을 하였다. 노후준비의 전반적인 경향은 신체적 준비가 경제적 준비나 심리적 준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생활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로는 건강 관련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조사되어 노후에는 누구든 건강과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노후의 부양책임에 있어서는 본인이나 본인과 배우자에게 있다고(이복희, 2006) 하였다

노후에 대한 준비시기에 대해서는 30대부터라는 응답을 보였는데 노후생활 계획에 있어선 막연히 생각하거나 없다고 응답을 하였다. 노후준비도의 하위요인별 수준에서는 신체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보통수준의 노후준비 도를 보였지만 경제적 측면과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 측면은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김영남, 2015)을 보였다. 이는 2014년도에 조사된 노인실태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노후에 대한 준비인식은 높으나 실제적으로 준비상태는 30% ~40%라는 결과와도 일맥상통 한다 할 것이다.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노후 부양책임이나 경제력은 스스로 해결 한다 에 높은 점수를 보인다. 노후 계획의 수립이유로는 경제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와 건강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입소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이었

고, 대상자의 노후 준비 실태정도를 보면 정서적 준비정도가 가장 높게(이채우, 2008) 나왔다.

성공적 노년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원하지 않으며, 노후준비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항목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노후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는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대상자의 노년인식정도에서 성공적 노년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준비,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으로 인식(박경미, 2013)하고 있었다.

노후 대책과 노인복지 시설 이용 여부에 있어서 저축이나 재산을 통해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가계소득이 중산층 수준의 집단에서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추기철, 2000)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교육 수준과 생활수준에 의한 변화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노후대책은 아들 이었던 것에서의 변화이다.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 일 것이다. 경제적인 여건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 박정희(2007)의 연구에서도 건강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력, 외로움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부양에 대한 응답은 ‘기대하지 않음’ 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노후의 생계는 본인이나 가족이 해결하며, 노후준비에 대한 시기는 20대와 30대에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준비 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복지관을 이용할수록 노후준비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는 노후 준비도가 높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정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성공적 노화와 관련(장은아, 2014)이 있었다.

취업여성과 비 취업 여성간의 노후준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희망하는 노후의 모습은 좋아하는 취미활동과 생산적인 일을 희망하고 있었고, 행복한 노후조건은 신체적 건강, 경제적 여유, 적절한 역할, 편안한 마음가짐 순 이었다. 노후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노후의 가장 큰 문제로 답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를 들고 있다. 노후 준비시기에 있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신체적 노후준비를 제외하고 취업여성이 비 취업여성에 비해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다. 노후 기대 수준별 노후에 관한 일반적 인식, 노후준비,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를 비교한 결과, 노후를 휴식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이 노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도 더 잘하는 것(이남, 2010)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경제적 수준, 거주지 유무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다. 노후 문제나 노후계획, 노후생활에 있어서의 인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으며, 노후의 부양책임은 본인이나 본인과 배우자에게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구구성은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더불어 노후준비에 대한 대비가 불가피함을 말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인인식 연령은 시대의 흐름과 환경에 의한 평균 연령이 높음에 법적으로 구별하는 나이(65세)보다 높게(70세)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개인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 인식과 노후 준비대책에 있어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차원의 준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1> 일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 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추기철(2000)	한국 중년층의 노후대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노후대책은 저축, 재산 ·중산층수준이 노인복지시설 이용
이복희(2006)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식 ·신체적 준비가 높음 ·노후예상 문제로 건강관련, 경제적 문제 ·노후의 부양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박정희(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 중년여성의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노후생활 문제는 경제적문제 ·가족부양은 개대하지 않음

	구	·노후생계는 본인이나 가족 ·노후준비 시기는 20대와 30대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70세부터 노인으로 인식 ·자녀와의 독립을 원함 ·시설입소는 부정적 ·정서적 노후 준비도가 가장 높음
이남(2010)	노후기대에 따른 노후준비 및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	·신체적 노후준비를 제외하고 취업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준비를 잘함 ·희망하는 노후모습은 취미 활동과 생산적인 일 ·노후문제는 건강관련
황승희(2012)	중년기여성의 노후준비도 및 노후생활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연구	·39세 이전 노후준비시작 ·노후생활 중요 요인은 건강문제 ·노후준비를 하는 이유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경제적 준비는 미흡
배재덕(2013)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 태도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 연구	·70세부터 노인이라 인식. ·노후준비는 30대부터. ·노후부양책임은 본인과 가족. ·은퇴준비는 신체적 측면이 가장 잘됨.
박경미(2013)	중년여성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년인식에 대한 연구	·자녀와의 독립을 원함 ·노후준비수준은 높음 ·성공적 노년에 관한 인식은 경제적 독립 목적의식, 삶에 만족, 복지제도, 관계라 응답
장은아(2014)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남자가 여자보다 노후준비도가 높음 ·복지관을 이용할수록 노후준비도 높음 ·성공적 노화는 주후준비도가 높을수록, 월소득, 학력, 건강정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음
김영남(2015)	제주지역 중년층의 자기통제력, 자기 효능감 및 삶의 질 인식이 노후준비 정도에 미치는 영향	·70세부터 노인으로 인식 ·노후준비는 30대부터 ·노후생활계획은 막연하거나 없다 ·경제적 측면, 취업 및 사회활동참여는 낮은 수준



## 2)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노후 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주관적 경제 상태는 대다수가 보통이며,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높다.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은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으며, 전체의 노후준비 도는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정서적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다음으로 신체적 노후준비도, 경제적 노후준비도 순(김연선, 2015)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실제적 노후 준비대책에 있어선 일반 중·장년층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그것은 노후 준비의 하위 체계인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차원의 준비 도에 있어 정서적 준비 대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 요양시설에 종사하며 현재의 노인들의 문제를 피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인식이라 여겨진다. 경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아무리 준비가 잘되어 있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건강과 직결되기에 와상상태나 치매와 같은 현상으로 시설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별에 따른 노후생활실태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경제적 차원이나 정서적 차원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노후생활실태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신체적 차원으로는 여자가 노후생활실태에 대한 인식(우상경, 2012)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의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70세부터가 노인이며,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는 경제적 준비이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준비라 하였다. 노후준비 정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자신의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월수입과는 상관관계(박지선, 2004)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월수입이 많다고 하여 꼭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노후준비인식 또한 낮았다. 이는 시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초기라 급여 면이나 직무, 그리고 운영적 인면이 아직 확실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노후준비의식은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인 상태, 이직 의향이 없는 경우와 퇴직금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이춘희, 2008)에서 높게 나타났다.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최종학력과 결혼 유무가 노후 준비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종사자의 입사 형태 즉 정직과 계약직간의차이에서도 노후준비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노후생활은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노후 생활 대책은 30대부터 준비해야 하고, 노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력이라 하였다. 노후생활 대책 의식 정도는 보통 이상의 의식 정도를 보였고, 노후 생활의 경제대책은 노후보험, 사적 연금으로 조사되었다. 신체 및 건강유지 계획에 대한 대책 역시 보통 이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노후 생활 대책(백용운, 2008)이라 답하였다. 여가 활동 및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도 노후생활 대책은 3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하여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노후생활 경제 대책으로는 국민연금 보다는 사보험이나 노후보험이라고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실시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과 지급액 미약으로 인하여 다른 경제대책을(백용운 ,2008)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준비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및 심리적 대책은 대부분이 취미활동과 운동을 선호하며, 교양강좌나 주변 기타 등의 활동은 요양시설 근무의 형태상 근무시간의 제약과 제한으로 인한 시간여건이 자유롭지 못하여 아주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금 제도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전혀 연구되지 않은 결과로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퇴직 시 일시 지급하는 제도보다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노후준비 의식이 높은 반면, 노후준비대책은 낮은 것(이춘희, 2008)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 준비 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어진 경제적 준비와 그에 따른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를 살펴보고 요양보호사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 상태와 건강상태,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여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노후 준비를 함에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제도적 관리의 지원이 필요하고 노후준비인식이 일반 중·장

년층과 요양시설 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Ⅱ-2〉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노후 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박지선(2004)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경제적 준비 ·70세부터 노인이라 인식 ·월수입이 많다고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님
이춘희(200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노후준비의식은 고학력자, 기혼인자, 이직의향이 없는 경우가 높음 ·노후준비의식이 높으면 노후준비실태도 높음
백용운(2008)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연구	·노후생활을 본인이 책임 ·노후대책은 30대부터 준비 ·노후의 문제는 경제적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여가 활동 및 사회생활 대책은 보통이상
우상경(2012)	중소도시 요양보호사의 노후생활대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준비실태가 정서적, 신체적 준비실태보다 낮음 ·남자는 경제적, 정서적차원의 준비가 높음 ·여자는 신체적 차원의 준비도가 높음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
김연선(2015)	사회복지사의 노후생활 인식과 퇴직 태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 노후 준비 도는 보통이상 ·주관적 준비수준 보통 ·노후인식 높음 ·퇴직태도인식이 높으면 노후준비도 높음

### Ⅲ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후준비인식과 그에 따른 노후 준비 실태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제주도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는 어떠하며, 요양보호사들의 노후준비 인식과 노후준비 실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인식하며, 요양보호사들 자신들이 노후준비 대책에 관심을 유발시키고, 요양보호사들이 지원 대책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제주 지역 소재의 노인요양시설 8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유의 표집 하였다. 제주시지역 노인 장기 요양시설로 제광원, 인효원, 성지원, 주사랑 요양원과 서귀포시지역 노인 장기 요양시설로 기로회요양원, 남제주요양원, 동광 효도마을 요양원, 소망요양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250부를 배부하고 226부를 회수하였으나 무응답과 일률적인 답변 등 부실한 응답자를 제외하였고, 여성에 비해 남성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성별 분석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 남성 또한 제외시켰으며, 최종 203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연구절차

연구대상자 선정은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250

인을 대상으로 유의표집 하였다. 제주도 4곳 (제광원, 인요원, 성지요양원, 주사랑요양원) 서귀포시 4곳 (남제주요양원, 동광효도마을 요양원, 기로회요양원, 소망요양원)을 표집 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13일에 걸쳐 김녕 소망요양원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0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9월 16일부터 2015년 9월 30일 까지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설문 가능 인원을 체크한 후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 3.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이상경(2012), 배재덕(2013), 이남(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노후 준비 실태 등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항목은 38문항으로 <표Ⅲ-1>의 내용과 같다.

<표Ⅲ-1> 요양보호사의 노후 준비인식 및 실태에 관련된 설문 항목

변수	하위변인	문항수
인구사회학적특성	연령, 학력, 퇴직시남은기간, 종교, 결혼상태, 월소득, 배우자직업, 자녀수	8
노후준비인식	노인으로 자각하는 연령 노후생활 중요 요인 노후준비 시기 노후생활 부양책임 본인의 경제상태 본인의 건강상태 본인의 사회적 활동 상태 가족과의 친밀도	8
노후준비실태	신체적준비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식생활에 주의하고 있다 체중관리를 하고 있다 운동으로 몸을 단련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휴식을 취한다	6
	경제적준비 노후생활비는 스스로 준비 한다 재취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 별도의 연금등에 가입 한다 가계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알고 있다 은행적금 저축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한다 노인소득보장 정책을 알고 있다 퇴직금, 연금의 활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9
	정서적준비 스트레스를 관리 한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장점과 능력개발에 힘쓰고 있다 취미생활을 준비 한다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노후생활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7

## 1) 노후 준비

이 연구에서는 노인요양 시설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상경(2012), 배재덕(2013), 이남(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사도구를 재구성 하였다. 22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정도는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 2) 노후 관련요인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독립변수로 사용될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퇴직까지의 남은 기간, 종교, 결혼여부, 월 소득, 직업, 자녀수, 배우자의 직업이다. 연령은 설문구성에 있어서 직접 기입하게 하고, 성별은 예비 조사 시 남자 비율이 너무 낮아 설문 구성에서 제외 시켰으며, 나머지 부분은 보기 번호를 부여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 (2) 노후준비 인식

노후준비인식에 대한 측정을 위해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나이,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우선순위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정서적 상태와 노후준비 시기, 노후부양책임은 보기 번호를 부여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 (3) 노후준비 실태

노후준비 인식에 의한 노후생활준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적 준비와 경제적 준비, 그리고 정서적 준비와 관련된 문항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총 22문

항으로 각각 신체적 준비 실태는 6문항, 경제적 준비 실태는 9문항, 정서적 준비 실태는 7문항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 (4) 척도의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신체적 준비실태, 경제적 준비실태, 정서적 준비 실태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표 III-2〉와 같이 나타났다. 검사결과 신체적 준비는 〈표III-2〉 Crombach 's α계수 0.80이었고, 경제적 준비가 0.75이었으며, 정서적 준비는 0.8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노후 준비 실태에 관련된 문항별 구성은 강한 응집력을 보이므로 이 연구에 사용함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2〉 신뢰도 분석결과

척도	문항수	신뢰도(Crombach 's α)
신체적 준비	6	.804
경제적 준비	9	.752
정서적 준비	7	.848

## 4. 자료분석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20.0 v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후준비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연령, 최종학력, 퇴직 시 남은기간, 종교, 결혼상태, 월수입, 배우자직업, 자녀 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후준비인식에 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고,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t - test 와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 실태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표IV-1>과 같다. 요양보호사의 최종학력은 고졸이상이 가장 많은 99명(49%)이고, 전문대졸 65명(32.2%), 대졸이 23명(11.4%), 중졸이하가 15명(7.4%)순으로 나타났다. 고졸과 전문대졸이 응답자의 8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퇴직까지의 남은기간은 5년에서 10년 미만이 83명(4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년 미만 51명(25.1%),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1명(20.2%), 20년 이상이 14명(7.8%)으로 요양보호사의 연령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퇴직나이를 60세로 예상 했을 때 50세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상경(2012), 정영희(2013), 문상현(2014)의 연구에서도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대는 50세에서 55세 까지가 가장 많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5명(27.1%)이며, 기독교 82명(40.4%), 불교 35명(17.2%), 천주교 21명(10.3%), 기타 10명(3.4%)의 분포를 보였다.

결혼 상태에 있어서는 기혼자가 150명(73.9%)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은 23명(11.3%),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가 각각 16명(7.9%), 9명(4.4%)이며, 기타 5명(2.5%)으로 조사되었다.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73명(85.2%)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19명(9.4%), 300만원 이상은 11명(5.5%)에 불과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대부분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직업은 월급 받는 직원으로 응답한 경우가 73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41명(20.2%), 농수산업이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각각12명(5.9%) , 배우자 직업이 없는 경우도 16명(7.9%)이나 됐으며, 기타 49명(24.1%)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자녀수는 2자녀가 101명(49.8%)으로 절반을 차지하

였고, 다음으로 3자녀 44명(21.7%). 1자녀 26명(12.8%)이며, 4자녀이상은 7명(3.4%)이었다,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5명(12.3%)이었으나 이는 미혼인 경우가 포함된 경우라 기혼이며 자식이 없는 경우는 두 명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종합하면 연구대상자들은 중년층으로서 평균 연령 50세이며, 학력은 고졸이상이 가장 많은 99명(49%)이고, 종교에 있어서는 기독교 82명(40.4%)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대부분이 기혼자 150명(73.9%)이며, 월 평균 소득에 있어서는 200만원 미만이 173명(85.2%)이고, 배우자의 직업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 73명(36%)이며, 자녀수는 2명으로 분석되었다.

<표IV-1>.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03)

구분		빈도(명)	%
최종학력	중졸이하	15	7.4
	고졸	99	49.0
	전문대졸	65	32.2
	대졸	23	11.4
퇴직 시 남은기간	5년미만	51	25.1
	5년이상-10년미만	83	40.9
	10년이상-15년미만	41	20.2
	15년이상-20년미만	14	6.9
	20년이상-25년미만	7	3.4
	25년이상	7	3.4
종교	없음	55	27.1
	불교	35	17.2
	기독교	82	40.4
	천주교	21	10.3
	기타	10	4.9
결혼상태	미혼	23	11.3
	결혼	150	73.9
	이혼	16	7.9
	사별	9	4.4
	기타	5	2.5
월수입	200만미만	173	85.2
	200만이상-300만미만	19	9.4
	300만이상-400만미만	6	3.0
	400만이상-500만미만	4	2.0
	500이상	1	.5
배우자직업	없음	16	7.9
	자영업	41	20.2
	월급 받는 직원	73	36.0
	농수산업	12	5.9
	비정규직(시간제, 부업)	12	5.9
	기타	49	24.1
자녀수	1명	26	12.8
	2명	101	49.8
	3명	44	21.7
	4명이상	7	3.4
	없음	25	12.3

## 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인식

### 1) 노후준비인식 (노후생활 중요도)

노후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중요항목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89명(32.6%)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1순위로 꼽았으며, 2순위는 177명(29.2%)으로 경제력을 가지는 것, 3순위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 65명(10.7%)이 응답하였다.

박해연(2008)의 연구에 서는 경제적 문제가 4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관련 문제 39.8%, 소외와 고립이 문제가 10.3%순으로 나타났다. 배재덕(2013)은 건강문제가 74.1%로 1순위이며, 경제적 문제가 57.8% 2순위, 3순위는 취미 생활로 33.8%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에 있어서 중요 관심사항은 건강문제와 경제문제 및 부부가 함께 해로하는 것이나,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과 소외와 고립이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표Ⅳ-2〉 노후준비인식 (노후생활 중요도)

(N=203)

구분		빈도(명)	%
1순위	<b>건강</b>	<b>156</b>	<b>76.8</b>
	경제력	35	17.2
	사회활동	2	1.0
	자신의 취미생활	2	1.0
	부부 해로	4	2.0
	종교 활동을	4	2.0
	건강	37	18.2
2순위	<b>경제력</b>	<b>118</b>	<b>58.1</b>
	사회활동	12	5.9
	자신의 취미생활	11	5.4
	부부 해로	13	6.4
	종교 활동	7	3.4
	좋은 친구	4	2.0
	무응답	1	0.5
3순위	건강	5	2.5
	경제력	24	11.8
	사회활동	38	18.7
	자신의 취미생활	43	21.2
	<b>부부 해로</b>	<b>48</b>	<b>23.6</b>
	종교 활동	14	6.9
	좋은 친구	27	13.3
	기타	3	1.5
무응답	1	0.5	
노후생활중요도(전체)	<b>건강</b>	<b>198</b>	<b>32.6</b>
	<b>경제력</b>	<b>177</b>	<b>29.2</b>
	사회활동	52	8.6
	자신의 취미생활	56	9.2
	<b>부부 해로</b>	<b>65</b>	<b>10.7</b>
	종교 활동	25	4.1
	좋은 친구	31	5.1
	기타	3	0.5

## 2) 노후준비인식 (노인자각연령, 노후준비시작시기, 노후생활부양책임)

노후준비 인식에 있어서는 노인이라 자각하는 연령과 노후준비 시작시기 그리고 노후생활 부양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표Ⅳ-3>과 같다.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49.96세로 표준편차 ( $\pm$ ) 7.78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노인이 되는 시기에 대한 인식은 70세부터 라고 응답한 경우가 94명(4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5세(34%), 75세부터 28명(13.8%), 60세부터 7명(3.4%)의 순으로 노인으로 인식하는 나이가 법적인 나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후 준비 시작시기 에서는 35세부터 40세 이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3명(3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5세 이전 39명(19.2%), 40세 이후부터 45세 이전 38명(18.7%), 45세 이후부터 50세 이전 26명(12.8%), 50세 이후부터 55세 이전 25명(12.3%), 55세 이후부터는 12명(5.9%)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후생활의 부양책임을 살펴보면 본인이나 본인과 배우자라 응답한 경우가 122명(60%),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책임을 져야 한다가 47명(23.2%)이다. 대부분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국가나 사회 19명(9.4%), 국가 14명(6.9%)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배재덕(2013), 박지선(2014)이 중년층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노후생활에 대한 부양책임은 본인인 가족이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였으며, 국가나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응답도 나타났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응답도 나타나, 노후 생활을 국가에 의지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IV-3> 노후준비인식 (노인자각연령, 노후준비시작시기, 노후생활부양책임)  
(N=203)

구분	응답	빈도(명)	%
노인이자 자각하는 연령	60세	7	3.4
	65세	69	34.0
	<b>70세</b>	<b>94</b>	<b>46.3</b>
	75세	28	13.8
	기타	5	2.5
노후준비시작	35세이전	39	19.2
	<b>35세이후-40세이전</b>	<b>63</b>	<b>31.0</b>
	40세이후-45세이전	38	18.7
	45세이후-50세이전	26	12.8
	50세이후-55세이전	25	12.3
	55세이후부터	12	5.9
노후생활 부양 책임	<b>본인</b>	<b>61</b>	<b>30.0</b>
	<b>본인과 배우자</b>	<b>61</b>	<b>30.0</b>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족)	47	23.2
	국가	14	6.9
	국가와 사회	19	9.4
	기타	1	0.5

### 3) 노후준비인식 (경제, 건강, 사회적 활동, 가족친밀도)

노후준비 인식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각하는 경제 상태나 건강상태, 사회적 활동이나 가족과의 친밀도를 살펴보면 <표IV-4> 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입장에서의 경제 상태는 대부분이 보통이다가 134명(66%)으로 삶의 긍정적인 면이 강해 보였다.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38명(18.7%), 매우 어렵다 16명(7.9%) 이며, 여유가 있다는 14명(6.9%), 매우여유가 있다는 1명(0.5%)이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 본인들이 자각하는 건강상태 역시 보통이다가 절반이상 132명



(6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좋은 편이다 47명(23.2%)로 나타났다.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4명(2.0%)도 있어 대부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나쁘다 17명(8.4%), 매우 나쁘다 3명(1.5%)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측면의 주관적 견해에 관한 물음으로 첫 번째 사회적 활동 상태에 있어서 역시 보통이다가 120명(49.8%), 그리고 좋은 편이다 58명(28.6%), 나쁘다 14명(6.9%), 매우 좋은 편이다 8명(3.9%), 매우 나쁘다 3명(1.5%)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친밀도를 보면 보통이다 101명(49.8%), 좋은 편이다 80명(39.4%), 매우 좋은 편이다 13명(6.4%)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서적 측면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나쁘다 6명(3%), 매우 나쁘다 3명(1.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현재의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134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였고 어렵다로 응답한 사람은 38명(18.7%)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132명(65%)이며, 건강하지 못 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20명으로 9.9%로 조사되었다. 정서적 측면의 주관적 견해는 보통이다가 120명으로 전체의 49.8%이고, 나쁘다 14명으로 6.9%이다. 가족 친밀도에 있어서 역시 보통이다가 101명으로 49.8%이며 나쁘다는 6명으로 3%로 조사되었다. 배재덕(2013)이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상태, 건강상태, 정서적 차원인 사회적 활동 상태 모두 보통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박지영, 2012. 문상현, 2014)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과는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경제 상태나 사회적 활동 상태와 건강상태에 있어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IV-4> 노후준비인식 (경제, 건강, 사회적 활동, 가족 친밀도) (N=203)

구분	응답	빈도(명)	%
본인 경제상태	매우 어렵다	16	7.9
	어렵다	38	18.7
	보통이다	134	66.0
	여유가 있는 편이다.	14	6.9
	매우 여유가 있는 편이다	1	0.5
본인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3	1.5
	나쁘다	17	8.4
	보통이다	132	65.0
	좋은 편이다	47	23.2
	매우 좋은 편이다.	4	2.0
본인 사회적 활동 상태	매우 나쁘다	3	1.5
	나쁘다	14	6.9
	보통이다	120	59.1
	좋은 편이다	58	28.6
	매우 좋은 편이다	8	3.9
본인 가족 친밀도	매우 나쁘다	3	1.5
	나쁘다	6	3.0
	보통이다	101	49.8
	좋은 편이다	80	39.4
	매우 좋은 편이다	13	6.4

### 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실태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으로 지내야 하는 기간은 길어진 반면 노인으로서 적절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 경제적 수입의 감소와 각종 노인성 질환의 발병,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대화의 단절로 인해 점차 외롭다고 느끼는

노인이 많아지게 되었다. 노년기에 대한 견해와 노후준비인식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박지선, 2004)으로 나타났는데 노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노후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이 노후를 실제로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의 노후 준비 실태는 <표IV-5>, <표IV-6>, <표IV-7>와 같이 나타났다.

#### 1) 경제적 노후준비실태

경제적 차원의 변수의 총점을 5점으로 하였을 때,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생활 실태에 따른 만족도 평균은 3.21로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 실태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노후생활실태의 경제적 차원에 대해 살펴보면 노후생활비는 자식에게 의지하기 보다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4.17로 전체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는 노후생활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노후에 재취업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다는 3.36,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개인연금 상품 등에 별도로 가입하였다는 3.37로 노후생활을 위해 은행적금, 저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가계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3.82이다. 노후생활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2.52로 다른 경제적 준비에 다소 못 미쳤다.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2.12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특성상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정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후생활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2.53이며, 노후에 퇴직금이나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3.02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이상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노후생활비에 대한 부분으로 80%이상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유지와 더불어 독립된 삶을 추구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제주여성의 특성상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와도 연결 지어볼 수 있다.

<표IV-5>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N=203)

구분	N	SD(±)
1. 노후 생활비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4.17	0.724
2. 재취업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다	3.36	0.852
3. 개인연금 상품 등에 별도로 가입하였다	3.37	1.078
4. 가계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잘 파악 하고 있다	3.82	0.784
5. 은행적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3.62	0.984
6.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2.53	1.069
7.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다	2.12	1.002
8. 정부의 노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85	0.872
9. 퇴직금이나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3.02	0.993

## 2) 신체적 노후 준비실태

신체적 노후 준비정도의 총점을 5점으로 하였을 때, 조사대상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실태 평균은 3.51로 조사대상자들이 신체적 준비정도는 보통이상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노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가 3.86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며 음주·흡연을 피하고 평소 식생활에 주의 하고 있다는 3.75로 노후 생활을 위해 정기적 검진과 음주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체중관리를 위해 힘쓰다가 3.52, 건강생활을 위해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다는 3.20,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3.38, 피곤하면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휴식을 취 한다가 3.45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은 건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신체적 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표IV-6> 신체적 노후준비실태

(N=203)

구분	N	SD(±)
1.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3.86	0.794
2. 식생활에 주의하고 있다	3.75	0.923
3. 체중관리를 위해 힘쓴다	3.52	0.869
4. 운동으로 몸을 단련 한다	3.20	0.987
5.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3.33	0.893
6. 휴식을 취 한다	3.45	0.824

### 3) 정서적 노후준비 실태

정서적준비실태의 중점을 5점으로 하였을 때,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생활실태에 따른 만족도 평균은 3.38으로 노후준비에 있어서 만족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정서적 준비 실태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노후생활 실태의 정서적 차원에 대해 살펴보면 노후에 정서적으로 편안한 삶을 위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3.55이며, 노후에는 두부부만 살기보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2.66으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자식하고 같이 살기보다는 독립하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식이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노후에도 본인의 장점과 능력 개발을 위해 힘쓴다는 3.51, 노후의 취미 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3.28,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이라는 3.69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결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있어 정서적 준비실태로 노후모임을 많이 만들며 늘 참여 하고자 한다와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각각 3.43과 3.59로 조사되어 비교적 정서적 준비는 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노년기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노후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려는

노력이라 보여 진다.

<표IV-7> 정서적 노후준비실태 (N=203)

구분	N	SD(±)
1.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 한다	3.55	0.853
2.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2.64	1.051
3. 본인의 장점과 능력 개발을 위해 힘쓴다	3.51	0.842
4. 취미 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3.28	0.911
5.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3.69	0.818
6. 노후모임을 많이 만들며 참여 하고자한다	3.43	0.936
7. 노후의 생활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3.59	0.882

#### 4.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의 차이

##### 1) 연령에 따른 노후준비

<표IV-8>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운데 연령에 따른 노후 준비실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신체적 준비 실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F=6.38, p<.001$ ). 각 집단별로 차이가 나므로 사후검증으로 Scheffe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44세 이하 집단과 45세 ~49세 집단 보다 55세 이상 집단이 노후준비에 있어 신체적 준비 실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하기에 신체적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IV-8> 연령에 따른 노후준비

(N=203)

구분	연령	N	M	SD(±)	F	Scheffe 검정	
노 후 준 비 실 태	44세이하	43	3.31	0.583	6.38***	a, b < d	
	신체적 준비	45-49세이하	41	3.39			0.654
		50세이상-54세이하	61	3.49			0.603
		55세이상	58	3.79			0.568
노 후 준 비 실 태	44세이하	43	3.12	0.479	2.07		
	경제적 준비	45-49세이하	41	3.31			0.624
		50세이상-54세이하	61	3.11			0.536
		55세이상	58	3.30			0.527
노 후 준 비 실 태	44세이하	43	3.36	0.491	1.54		
	정서적 준비	45-49세이하	41	3.35			0.683
		50세이상-54세이하	61	3.28			0.694
		55세이상	58	3.53			0.693

\*\* $p < .001$  a=44세이하, b=45-49세이하, d=55세이상

2) 최종학력에 따른 노후준비

<표IV-9>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운데최종학력에 따른 노후 준비실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최종학력에 따른 신체적 준비실태, 경제적 준비실태, 정서적 준비실태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IV-9> 최종학력에 따른 노후준비

(N=203)

구분	최종학력	N	M	SD(±)	t값	
노 후 준 비 실 태	신체적 준비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114 88	3.55 3.49	0.603 0.636	0.66
	경제적 준비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114 88	3.16 3.27	0.513 0.587	-1.35
태	정서적 준비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114 88	3.32 3.47	0.685 0.613	-1.56

3) 퇴직 시 남은 기간에 따른 노후준비

<표IV-10>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운데 퇴직 시 남은 기간에 따른 노후 준비 상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퇴직시 남은 기간에 따른 신체적 준비상태( $F=8.99, p<.001$ ), 와 경제적 준비상태 ( $F=3.22,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5년 미만의 집단이 10년 이상 남은 집단보다 신체적 준비상태가 더 높게 나왔다. 경제적 준비상태에 있어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집단이 10년 이상 남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령의 기준점에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은데서 오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연령이 높다는 건 보다 더 노년기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으므로 노후 준비에 있어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표IV-10> 퇴직 시 남은 기간

(N=203)

구분	퇴직시 남은 기간	N	M	SD(±)	F	Scheffe 검정	
노 후 준 비 실 태	5년미만	51	3.78	0.654	8.99 ***	a > c	
	5년이상10년미 만	83	3.52	0.571			
	10년이상	69	3.31	0.593			
	신체적준비	5년미만	51	3.22	0.602	3.22 *	b > c
		5년이상10년미 만	83	3.30	0.565		
		10년이상	69	3.08	0.447		
	경제적준비	5년미만	51	3.50	0.732	1.37	
		5년이상10년미 만	83	3.39	0.681		
		10년이상	69	3.30	0.563		
정서적준비	5년미만	51	3.50	0.732	1.37		
	5년이상10년미 만	83	3.39	0.681			
	10년이상	69	3.30	0.563			

\*  $p < .05$ , \*\*\*  $p < .001$  a= 5년미만, b=5년이상10년미만, c=10년이상

#### 4) 종교에 따른 노후준비

<표IV-11>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운데 종교에 따른 노후 준비실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종교 따른 신체적 준비실태( $F=3.79$ ,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차이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로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는 천주교를 믿는 집단이 신체적 준비실태가 더 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적 준비실태( $F=2.76$ ,  $p < .05$ )나, 정서적 준비실태( $F=2.77$ ,  $p < .05$ )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1> 종교에 따른 노후준비

(N=203)

구분	종교	N	M	SD(±)	F	Scheffe 검정	
노 후 준 비 실 태	신체 적준 비	없음	55	3.31	0.603	3.79**	a<d
		불교	35	3.48	0.692		
		기독교	82	3.58	0.561		
		천주교	21	3.88	0.647		
		기타	10	3.55	0.529		
	경제 적준 비	없음	55	3.03	0.536	2.77*	유의미하 지않음(n s.)
		불교	35	3.33	0.483		
		기독교	82	3.22	0.521		
		천주교	21	3.42	0.644		
		기타	10	3.22	0.588		
	정서 적준 비	없음	55	3.22	0.642	2.76*	유의미하 지않음(n s.)
		불교	35	3.26	0.623		
기독교		82	3.54	0.536			
천주교		21	3.50	1.025			
기타		10	3.23	0.504			

\*  $p<.05$ , \*\*  $p<.01$  a= 없음, d=천주교

5) 결혼 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표IV-12>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운데 결혼 상태에 따른 노후 준비실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혼 상태에 따른 신체적 준비 실태, 경제적 준비실태, 정서적 준비실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IV-12> 결혼 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N=203)

구분	결혼상태	N	M	SD(±)	F
신체적 준비	미혼	23	3.27	0.593	2.22
	결혼	150	3.54	0.591	
	기타	30	3.59	0.768	
경제적 준비	미혼	23	2.98	0.329	2.28
	결혼	150	3.23	0.562	
	기타	30	3.27	0.583	
정서적 준비	미혼	23	3.33	0.504	0.22
	결혼	150	3.40	0.649	
	기타	30	3.33	0.767	

6) 월수입에 따른 노후준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변인 가운데 월수입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를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IV-13>에서 볼 수 있듯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신체적 준비 실태( $F=-2.47, p<.05$ ), 경제적 준비실태( $F=-3.92, p<.001$ ) 정서적 준비실태( $F=-3.25, p<.01$ )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요양보호사의 연령특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서 해방되고 연금을 받을 연령에 거의 도래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준비 부분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IV-13> 월수입 따른 노후준비

(N=203)

구분		월수입	N	M	SD(±)	t값
노 후	신체적	1.200만원 이하	173	3.47	0.584	-2.47*
	준비	2.200만원 이상	30	3.77	0.793	
준 비	경제적	1.200만원 이하	173	3.15	0.501	-3.92***
	준비	2.200만원 이상	30	3.56	0.685	
실 태	정서적	1.200만원미만	173	3.32	0.629	-3.25**
	준비	2.200만원이상	30	3.73	0.723	

\*  $p < .05$ , \*\*  $p < .01$ , \*\*\*  $p < .001$

7) 배우자 직업에 따른 노후준비

<표IV-14>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운데 배우자 직업에 따른 노후 준비실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서적 준비실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사후 분석으로 Scheffe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4> 배우자 직업에 따른 노후준비

(N=203)

구분	배우자 직업	N	M	SD(±)	F	Scheffe 검정
신체 적준 비	없음	16	3.58	0.637	0.50	
	자영업	41	3.56	0.614		
	월급 받는 직원	73	3.55	0.552		
	농수산업	12	3.58	0.756		
	비정규직(시 간제, 부업)	12	3.31	0.449		
	기타	49	3.46	0.731		
	노 후 준 비 실 태	없음	16	3.06		
자영업		41	3.35	0.603		
월급 받는 직원		73	3.22	0.509		
농수산업		12	3.29	0.607		
비정규직(시 간제, 부업)		12	2.97	0.532		
기타		49	3.15	0.514		
정서 적준 비		없음	16	3.01	0.853	2.96*
	자영업	41	3.45	0.636		
	월급 받는 직원	73	3.49	0.519		
	농수산업	12	3.51	0.804		
	비정규직(시 간제, 부업)	12	2.92	0.962		
	기타	49	3.37	0.603		

\*  $p < .05$

7) 자녀수에 따른 노후준비

<표IV-15>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운데 자녀수에 따른 노후 준비실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15> 자녀수에 따른 노후준비 (N=203)

자녀수	자녀수	N	M	SD(±)	F	
노 후 준 비 실 태	신체적준비	없음	25	3.43	0.728	0.49
		1명	26	3.62	0.487	
		2명	101	3.50	0.602	
		3명이상	51	3.55	0.664	
	경제적준비	없음	25	3.07	0.453	1.73
		1명	26	3.39	0.550	
		2명	101	3.17	0.534	
		3명이상	51	3.24	0.613	
	정서적준비	없음	25	3.41	0.602	0.74
		1명	26	3.55	0.619	
		2명	101	3.36	0.660	
		3명이상	51	3.32	0.704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노후준비 실태는 연령, 퇴직 시 까지 남은 기간,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신체적 준비실태( $F=6.38, p<.001$ )에 있어 44세 이하집단과 45세에서 49세 이하 집단이 55세 이상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퇴직 시까지 남은 기간은 5년 미만 집단이 10년 이상 집단보다 신체적 준비실태( $F=8.99, p<.001$ )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준비실태( $F=3.22, p<.05$ )는 5년이상 10년 미만인 집단이 5년 미만 집단 낮은 준비실태를 보였다. 종교는 신체적 준비실태( $F=3.79, p<.01$ ), 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천주교를 믿는 집단

이 신체적 준비실태가 높게 분석되었다. 이외에 최종학력, 결혼상태, 월수입, 배우자 직업과 자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5.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 실태와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 실태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는 <표 IV-16>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M=49.95$ 로 비교적 높은 연령대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자각하는 경제 상태는  $M=2.73$ 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M=3.16$ 로 보통 이다. 사회적 활동 상태는  $M=3.27$ 로 보통 이상이며, 가족과의 친밀도는  $M=3.46$ 으로 높다.

노후준비 실태에 있어서는 신체적 준비가  $M=3.52$ , 경제적 준비  $M=3.21$ , 정서적 준비  $M=3.38$ 로 모두 보통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김연선(2015)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신체적 $M=3.06$ , 경제적 $M=2.86$ , 정서적 $M=3.42$ 과 김영남(2015)이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신체적 $M=3.19$ , 경제적 $M=2.96$ , 정서적  $M=3.19$ 로 경제적 준비 정도는 다소 낮았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백용운(2008)의 연구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대책과 박경미(2013)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M=3.30$ , 경제적 $M=3.12$ , 정서적 $M=3.35$  준비와 배재덕(2013)의 신체적 $M=3.41$ , 경제적 $M=3.16$ , 사회적 $M=3.27$ 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우선 연령과 가족 친밀도는 유의미한 부적상관 관계가 있었다( $r=-.200, p<.01$ ). 즉,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친밀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자식들이 성장함에 따라 오는 인생주기의 결과라 분석 할 수 있다. 노후준비 실태에 관련해서는 신체적 준비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303$ )를 보였는데 이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하기에 신체적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경제 상태는 모든 면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경제 상태가 높으면 건강 상태( $r=.297$ ), 사회적 활동 상태( $r=.267$ ), 가족과의 친밀도( $r=.226$ ), 신체적 준비( $r=.154$ ), 경제적 준비( $r=.360$ ), 정서적 준비상태( $r=.286$ )가 모

두 높음을 알 수 있다.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장년층이 경제적 노후 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노후 생활 계획(김영남, 2015), 이라는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후준비인식이 노후 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번째로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사회적 활동 상태( $r=.431$ ), 가족과의 친밀도( $r=.220$ ), 신체적 준비( $r=.369$ ), 경제적 준비( $r=.283$ ), 정서적 준비상태( $r=.326$ )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사회적 활동 상태나 가족 친밀도, 신체적 준비상태와 경제적 준비상태, 정서적 준비 상태가 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사회적 활동 상태는 가족 친밀도( $r=.384$ ), 신체적 준비 상태( $r=.365$ )와 경제적 준비상태( $r=.256$ ), 정서적 준비 상태( $r=.355$ )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활동상태가 높으면 가족친밀도와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 상태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가족 친밀도는 신체적 준비상태( $r=.182$ )와 경제적 준비상태( $r=.245$ )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가족 친밀도가 높으면 신체적 준비상태와 경제적 준비상태가 모두 높다. 그러나 가족 친밀도와 정서적 준비상태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가족 간 대화나 친밀도가 높아 정서적 부분에 대한 준비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음으로 인한 결과라 여겨진다.

여섯 번째로 신체적 준비상태( $r=.561$ )는 경제적 준비상태( $r=.564$ )와 정서적 준비상태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적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경제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도 잘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준비는 정서적 준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619$ ) 즉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정서적 준비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가족과의 대화나 친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노인들은 가족의 울타리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박형란, 2010)하여 가족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안정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16 >.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대책과의 상관관계

N=203)

변인	N	SD(±)
1. 연령	0.50	7.784
2. 경제상태	2.73	0.723
3. 건강상태	3.16	0.656
4. 사회적 활동상태	3.27	0.709
5. 가족과의 친밀도	3.46	0.726
6. 신체적 준비	3.42	0.619
7. 경제적 준비	2.86	0.547
8. 정서적 준비	3.52	0.655

	1	2	3	4	5	6	7	8
1.연령	—	.052	.071	-.088	-.200**	.303***	.105	.078
2.경제상태		—	.297***	.264***	.226**	.154*	.360***	.286***
3.건강상태			—	.431***	.220**	.369***	.283***	.326***
4. 사회적 활동 상태				—	.384***	.365***	.256***	.355***
5.가족 친밀도					—	.182**	.245***	.118
6.신체적준비						—	.561***	.564***
7.경제적준비							—	.619***
8.정서적준비								—

\*  $p < .05$ , \*\*  $p < .01$ , \*\*\*  $p < .001$

## V .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노후 준비 실태의 차이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노후준비 인식이 노후준비 실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들 뿐만 아닌 중·장년층들도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요양시설 여성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 연령은 평균 연령이 49.95세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양 보호사의 연령층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49%가 고졸이상, 전문대졸이 32.2%로 고학력자들이며, 퇴직 시 까지 남은 기간에서는 10년 미만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므로 연령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유무에 있어서는 기혼자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월수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부동산등의 임대 소득이나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액임을 감안 할 때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 직업에 있어서는 월급을 받는 직원인 경우가 36%, 자영업 20.2%, 기타직업 24.1%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2명이 49.8%로 가장 많았다.

둘째,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 준비인식에서 먼저 노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32.6%가, 그 다음이 경제력을 가지는 것이 29.2%로 응답하였으며, 세 번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나 취미를 가지는 것, 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이 비슷한 비율의 응답률을 보였다. 노인이라 생각되어 지는 나이는 70세부터라는 응답이 46.3%, 65세부터라는 응답은 34%이다. 노후 준비 시기는 35세부터 40세 이전이라고한 경우가 31%로 가장 많았고, 35세 이전 19.2%, 40세에서 45세 이전이 18.7%로 일찍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후생활 부양책임에 있어서는 본인, 본인과 배우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분이 80%이상을 차지 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경제 상태나 건강상태, 사회적 활동 상태나 가족 친밀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불만 없이 보통인 상태라 응답하였다.

셋째,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 생활 준비 실태에 관해서 먼저 신체적 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노후를 위해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은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평소의 식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고, 체중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생활에 무리를 하지 않으며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 한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준비 실태에 있어서는 노후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 하고 있다. 퇴직 후의 삶에 관심을 두었고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만을 의지하지 않고 개인연금이나 보험 은행의 적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 소득 보장 정책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금전의 흐름에도 관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준비 실태에서는 노후에 정서적으로 편안한 삶을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힘쓰며, 자식과 같이 살기 보다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후의 취미생활을 위해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치매나 와상 노인들을 돌봄에 있어 갖게 되는 마음가짐이 노년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노화 현상이나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은 인정하고 평균 수명의 연장에 의해 길어진 노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고 여겨진다.

넷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노후준비 실태는 연령, 퇴직 시 까지 남은 기간, 종교, 월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신체적 준비실태( $F=6.38, p<.001$ )에 있어 55세 이상 집단이 44세 이하집단과 45세에서 49세 이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퇴직 시까지 남은 기간은 5년 미만 집단이 10년 이상 집단보다 신체적 준비실태( $F=8.99, p<.001$ )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준비실태( $F=3.22, p<.05$ )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집단이 5년 미만 집단 낮은 준비 실태를 보였다. 종교는 신체적 준비실태( $F=3.79, p<.01$ ),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신체적 준비실태가 높게 분석되었고, 월수입은 200만원 이하 집단보다는 2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준비실태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노후준비인식과 노후준비실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사회적 활동이나 가족과의 친밀도 모두 노후준비 실태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령에 따른 가족 친밀도에 있어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신체적 준비 실태에서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경제적 상태가 높다는 인식을 하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준비대책이 실제로 잘되어 있고, 주관적 건강상태나 가족과의 친밀도, 사회적 활동상태가 좋다고 여겼다. 이는 노후준비 실태에 있어서 노후준비 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자립은 노년기에 있어 생활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2. 제언

첫째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주지역 노인 요양 시설 요양보호사만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와 재가 시설, 의료요양시설 등의 요양보호사와의 차이 역시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별이나 요양 보호사 전체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간 비교연구나 시설형태 비교 연구도 유용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노후 준비인식과 노후 준비 실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후 준비 인식과 노후준비 실태만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나,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퇴직 태도 등의 보다 폭 넓은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요인 이외에 보다 다각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구조적인 설문지를 통한 양적 조사만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조사방법에 의한 연구와 결과는 다양한 응답을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터뷰나 면담 등을 통한 질적 연구가 같이 병행된다면,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 할 것이다.

넷째, 노후 생활에 있어서 자녀와의 독립으로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일이다. 자식을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하던 기존의 노인들과는 달리 현재의 중·장년층은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부부만이 독립된 생활을 원하며 경제적 자립 또한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가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거리가 필요하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시니어 클럽이 이러한 목적 하에 만들어진 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노인을 필요로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여러 종류의 사회복지시설 봉사차원의 일이나 동사무소를 통한 공공근로로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으로 노후에 원하는 삶을 살기위해선 미리미리 내가 할 수 있는 노년의 일을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경립(2004). 자원봉사 활동이 중년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정책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기은(2014).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미연(2014).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수미(2014).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노인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에스더(2014).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고양시 노인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김연선(2015). 사회복지사의 노후생활 인식과 퇴직 태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문제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영남(2015).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자기통제력, 자기 효능감 및 삶의 질 인식이 노후준비 정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2009). 노인요양보호사이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 과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류숙희(2014).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경희(2013). 요양보호사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소진에 미치는

-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 문상현(2015).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의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경미(2013). 중년여성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년인식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박옥선(2011).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과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 실천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 중년여성의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2004).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문학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12).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근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해연(2009). 병원근로자의 노후준비 의식과 노후대책.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단(2010).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전공석사학위 논문.
- 배재덕(2013).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용운(2008).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 논문.
- 서소혜(2010). 노인요양시설종사자의 직무환경이 노인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 학위논문.
- 손 원(2010). 중년기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분석 - 부부취업상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소비자 생활환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석전(2004).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의식 연구: 대전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공주

-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한나(2013).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가족 갈등 및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우상경(2012). 중소도시 요양보호사의 노후생활대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윤재희(2013). 노인여가복지 이용실태 및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오원갑(2011). 방문 요양보호사이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북 상주시, 문경시를 중심으로. 충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 남(2010). 노후기대에 따른 노후준비 및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 - 중년기 취업 여성과 비 취업여성 간 비교-.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부심(2009).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자의 직업의식 및 윤리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가족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복희(2006).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 경인 지역 사찰의 불교 신도를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선형(2007). 중년기 가구의 노인 및 자녀 세대 부양과 노후준비와의 관계 - 유치원, 초중고 재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전기박사학위논문.
- 이안생(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춘희(200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태화(2012). 노인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정희(2006). 농촌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아(2014).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복지관 이용노인과 비



- 이용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수원(201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문학석사학위 논문.
- 정애리(2007).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희(2013).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직무인식 및 만족도. 한양대학교 임상  
간호 정보대학원 노인 및 치매 간호 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규형(2013). 중년기 가족 부양부담이 개인의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 :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논문.
- 주현우(2015). 사회복지사들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2006). 중년층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일  
장신 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혜영(2004). 도시거주 전업주부와 취업여성들의 노후 대책에 대한 의식비교: 청  
주시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추기철(2000). 한국 중년층의 노후대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승우(2001). 노인의 일상생활과 성공적인 노화.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가정관  
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승희(2012). 중년기여성의 노후준비도 및 노후생활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2. 학술지

- 구인회·백학영(2008). 사회보장의사각지다 :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의 연구

- 24(1), 175-204. 국민연금 관리공단, 2006, 국민연금통계연보.
- 김양이·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 조사 연구 19, 55-82.
- 김여진·홍환(2009). 중·고령 전업주부와 취업여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 한국사회복지 보사연구, 21, 93-118.
- 김윤정·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 준비 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복지 조사연구, 24, 197-213.
- 김혜진(2012). 중년층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제도 인지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55-80.
-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 복지학, 60(3), 275-279.
-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후 생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 서전·박혜인(2004). 중년기 가족의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연구. 과학논집.
- 신효식·서병숙(1994). 노후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 손상감 인과모형, 한국노년학.
- 안현선·김효민·안진·김양(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
-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 이정화(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노후준비: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 인화영(2012).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에 관한 고찰. 복지상담교육연구, 1, No. 1, 65-80
-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인 복지학회.

- 조추용(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 9-40
- 차영란·김기법·전경숙(2007). 중년여성의 일상생활속이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 12권 3호, 229-309.
- 한경혜(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에 대한 이해.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3. 단행본

- 권중돈(2012). 노인복지론. 학지사.
- 버니튼 뉴가튼(Neugarten)(1964) 『중·노년기의 성격(Personality in Middle and Late Life)].
- Robert Kahn, John Rowe(2002), 옮김이; 최혜경, 권유경. 성공적인 노화.

### 4. 인터넷 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 <http://www.nhis.or.kr>
-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 노인복지법국립중앙도서관. : <http://www.nl.go.kr>
- 노인 장기 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co.kr>
- 보건복지부(2012).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 <http://www.riss.kr>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vv.go.kr/front/index.jsp>
- 보건사회연구원. : <http://www.kihasa.re.kr>
- 제주도청 노인 장애인 복지과 : <http://www.jeju.go.kr>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 고령자 통계.
- 인구규모 및 구조
- 노인 실태 보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http://www.elder.or.kr>

한국요양보호협회. : <http://www.silvercare.org>

<Abstract>

## A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of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Jeong, Soon Hee**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 Kim, Hye Sook**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the current status and the relations targeting elderly care workers playing a role as an assistant for senior citizens' healthier and peaceful life by providing service like physical or household activities to the elderly necessary to have care for chronic disease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otal 203 care workers of eight elderly care facilities(four in Jeju-si, four in Seoguipo-si) in Jeju-do. Using SPSS 20.0 program to verify the collected data, th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like below.

First, the age of care workers of elderly care facilities was average 49.95

while more than half of them had higher academic background of graduation of high school. Their religion was in the order of Christianity and Buddhism while more than 70% currently had a spouse. Regarding monthly income, more than 85% had less than 2million won. In regard of spouse's occupation, mostly they were working for paid-jobs while the family with two children was the most.

Second, regarding the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of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the health was the biggest issue in the later life, and then followed by having economic power, and growing together with spouse. They responded that they would be self-realized as the elderly at 70, and the period to prepare for old age would be starting before 40. In case of the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e later life, the person him/herself or the person him/herself & spouse got the most responses. The care workers mostly cognized the subjective health condition, social activity condition, family closeness, and economic condition more than the average while the family closeness was the highest(average 3.463).

Third, in regard of the current status of preparing for old age of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the physical preparation, they were managing not to get fatigued by getting regular health check-up, paying attention to dietary life, and regularly exercising for weight control. In the economic preparation, they aimed to solve the living expenses for the later life by themselves through personal pension, insurance, and installment savings. They showed a bit less responses to the elderly income security policy or investment in real-estate. In the emotional preparation, they reduced stress, wanted to have independent life rather than living with children, put efforts into developing their merits and ability even in later life, and also overcame a sense of alienation/futility by creating gatherings for the elderly.

Fourth,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preparing for old age in accordance with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the age, period left till retirement, religion, and monthly incom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age, the group with more than 55 showed great physical preparation. In case of the period left till retirement, the group with less than five years showed statistically high physical/economic preparation. The group with religion showed better physical preparation than the group without it. In regard of monthly income, the group with more than 2million won showed higher physical/economic/emotional preparation than the group with less than 2million won.

Fifth,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the current status of preparation for old age of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the family closene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age while the subjective economic condition was a bit high. When their economic condition was cognized to be stable, the subjective health condition, social activity condition, family closeness, and the actual preparation for old age were also high.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of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current preparation for old age. Because of the extended average life expectancy, insecurity of ambiguous later life, the necessity of preparation for old age through the direct contact with the elderly owing to their vocational characteristics, maintenance of the current life standard, and no expectation of elderly welfare policy or family support, they put more emphasis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In order to maintain satisfactory life in later life, all the physical, economic, and emotional aspects should be systematically prepared without leaning to a certain part. Additionally,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of care workers, the policy support for the preparation for old age should be provided.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measures to maintain economic power for the elderly who want to

live independently, and also to develop long-term programs to prepare for old age.



설 문 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후준비 인식 및 대책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 대학원 가정관리학과에서 가족학을 전공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노후  
생활에 대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 실태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앞으로  
다가올 노후에 적극적이고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응답은 옳고 그름이 없으며 평소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히 답해주시  
고, 각 페이지에 있는 모든 항목을 반드시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과 관련된 응답내용 및 개인 신상정보는 한국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  
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  
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소중한 의견은 학문적인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쁘시겠지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  
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9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숙

연구자 정 순 희

(연락처 : 010-2225-8451)

I. 개인별 특성을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 √ )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만 세)

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졸업이하 ② 고등학교졸업 ③ 전문대학졸업 ④ 대학교졸업  
⑤ 대학원이상졸업 ※ 중퇴나 수료는 해당학교 졸업에 포함하여 응답

3. 귀하께서 예상하시는 퇴직까지 남은 기간을 몇 년입니까?

- ① 5년미만 ② 5년이상 ~ 10년미만 ③ 10년이상 ~ 15년미만  
④ 15년이상 ~ 20년미만 ⑤ 20년이상 ~ 25년미만 ⑥ 25년이상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없음 ② 불교 ③ 기독교 ④천주교 ⑤ 기타

5.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미혼 ② 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6. 귀하의 월평균 총소득(임대, 이자소득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 ① 200만미만 ② 200만이상 ~ 300만미만 ③ 300만이상 ~ 400만미만  
④ 400만이상 ~ 500만미만 ⑤ 500만이상

7.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없음 ② 자영업 ③ 월급을 받는 직원 ④ 농수산업 ⑤ 비정규직(시간제, 부업)  
⑥ 기타 ( )

8. 귀 가정의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없음

II. 노후에 대한 인식 설문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 √ ) 주십시오.

1. 귀하는 노인이 되는 시기를 언제부터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60세부터 ② 65세부터 ③ 70세부터 ④ 75세부터 ⑤기타( )

2. 귀하께서 노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록 하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

- 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② 경제력을 가지는 것  
③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④ 자신의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  
⑤ 부부가 해로 하는 것    ⑥ 종교 활동을 하는 것  
⑦ 좋은 친구가 있는 것    ⑧ 기타 ( )

3.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5세이전 ② 35세이후 ~ 40세이전 ③ 40세이후 ~ 45세이전  
④ 45세이후 ~ 50세이전 ⑤ 50세이후 ~ 55세이전 ⑥ 55세이후부터

4. 노후 생활에 대한 부양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 ② 본인과 배우자 ③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족)  
④ 국가 ⑤ 국가와 사회 ⑦ 기타( )

5. 귀하는 본인(가구)의 경제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여유가 있는 편이다  
⑤ 매우여유가 있는 편이다

6. 귀하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은 편이다

7. 귀하는 친구와의 대화나 여가생활 등 사회적 활동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은 편이다

8. 귀하는 가족과의 대화나 친밀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은 편이다

Ⅲ. 노후생활실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견해와 일치하는 곳에 “√”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체적 준비에 대한 문항입니다.

신체적 준비	5.매우그 렇다	4.그렇다	3.그저그 렇다	2.아니 다	1.전혀아 니다
1. 노후의 건강을 위해 정기 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2. 음주 흡연을 피하고 평소 식생활에 주의하고 있다					
3. 체중관리를 위해 힘쓴다					
4. 건강 생활을 위해 운동으 로 몸을 단련 한다					
5.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 지 않는다					
6. 피곤하면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휴식을 취 한다					

2. 경제적 준비에 대한 문항입니다.

경제적 준비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그 저 그렇다	2. 아니 다	1. 전혀 아니다
1. 노후 생활비는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2. 노후에 재취업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다					
3.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개인연금 상품 등에 별도로 가입하였다					
4. 가계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잘 파악 하고 있다					
5. 노후 생활을 위해 은행적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6. 노후 생활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7.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다					
8. 정부의 노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9. 노후에 퇴직금이나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3. 정서적 준비에 대한 문항입니다.

정서적 준비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2. 아니다	1. 전혀 아니다
1. 노후에 정서적으로 편안한 삶을 위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 한다					
2. 노후에는 두 부부만 살기보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3. 노후에도 본인의 장점과 능력 개발을 위해 힘쓴다					
4. 노후의 취미 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5.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6. 노후모임을 많이 만들며 늘 참여 하고자한다					
7.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